

잡아함 66. 생경

날짜: 2월 15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668>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항상 힘써 선(禪)을 수행해서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느니라. 왜냐 하면 힘써 선(禪)을 수행해서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면 사실 그대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사실 그대로 관찰하는가?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색의 적집(積集)이다. 이것은 색의 소멸이다. 수 · 상 · 행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은 식이다. 이것은 식의 적집(積集)이다. 이것은 식의 소멸이다’라고 사실 그대로 관찰하느니라.

어떤 것이 색의 적집(積集)이며, 어떤 것이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의 적집(積集)인가? 비구들아,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색의 적집(積集)과 색에 맛들임[色味]과 색의 재앙[色患]과 색에서 벗어남[色離]을 사실 그대로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색을 즐거워하고 찬탄하며 애착하여 미래 세대에서 색이 다시 생긴다. 수 · 상 · 행 · 식에 있어서도 또한 이와 같이 자세히 말할 수 있느니라.

그 색이 적집(積集)하고 수 · 상 · 행 · 식이 적집(積集)하고 나면 색에서 해탈하지 못하고, 수 · 상 · 행 · 식에서 해탈하지

못하나니, ‘그는 태어남 · 늙음 · 병듦 · 죽음 · 근심 · 슬픔 · 번민 · 괴로움과 같은 완전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에서 해탈하지 못했다’고 나는 말한다.

이것을 색의 적집(積集)이라 하며 수 · 상 · 행 · 식의 적집(積集)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이 색의 소멸[識滅]이며,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의 소멸[滅]인가? 법문을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색의 적집(積集)과 색의 소멸과 색에 맞들임과 색의 재앙과 색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관찰하고 사실 그대로 안다. 사실 그대로 알기 때문에 색을 즐거워하지 않고, 색을 찬탄하지 않으며, 색에 애착하지 않고, 또한 미래의 색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수 · 상 · 행 · 식에 있어서도 또한 이렇게 자세히 말할 수 있느니라.

색이 적집(積集)하지 않고, 수 · 상 · 행 · 식이 적집(積集)하지 않기 때문에 색에서 해탈할 수 있고, 수 · 상 · 행 · 식에서 해탈할 수 있나니, 그러면 ‘그는 태어남 · 늙음 · 병듦 · 죽음 · 근심 · 슬픔 · 번민 · 괴로움의 완전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에서 해탈하였다’고 나는 말한다.

이것을 색의 소멸이라 하며, 수 · 상 · 행 · 식의 소멸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비구는 힘써 선(禪)을 수행해서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고, 수행방편을 부지런히 닦아 사실 그대로 관찰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